박원순·이석연 서울시장 보선출마 선언

무소속 완주냐, 단일화냐 관심

여야, 당내 경선 실패 따른 대응책 마련 부심

이석연 변호사와 박원순 변호사가 21일 보수, 진보 각 진영의 무소속 '시민후보'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두 사람의 출마로 기존의 전통적인 여야 간의 양자대결 구도는 무소속을 포함한 다자대결 구도로 흐르면서 유동적인 선거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와 박 변호사 모두 향후 본선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무소속 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우선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여권 시민사회후보로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세일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을 추대인 대표로 한 200여명의 시민사회진영 대표가 후보 추대식을 갖고 이 변호사가 수락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변호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수도 이전 시도에 맞서 서울을 지켜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인 서울을 살리는 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슬로건으로 '서울을 지킨 이석연, 서울을 살리겠습니다'로 정했다.

박원순 변호사도 이날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야권 통합후보를 기치로 내걸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0년은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며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 환경 , 교육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르는 새 서울시민은 빚쟁이가 됐다"며 "두 전임시장을 거치며 부채가 늘고 재정이 파탄났으며 의회와의 갈등으로 대의 민주주의는 실종돼 시정이 중단됐다"고 각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 "분명한 것은 지금 야권단일후보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시장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의 전폭적 협력으로 단일후보가 되고 선거 이후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 영입에 각각 공을 들여 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야 모두 이들을 당내 경선 무대에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만큼 본선에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한나라당은 내달 4일 당의 후보를 선출한 뒤 본선 과정에서 이 변호사와 연대 또는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내 지명도 1위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후보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며, 나 최고위원은 22일을 전후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천정배, 박영선, 추미애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후보를 확정한 뒤 박 변호사와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두 시민후보 출사표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시장후보 추대식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시장 통합후보 범야권 신경전

민주·민노·진보신당 등 단일화 방식 입장차

여론조사에 시민참여경선·배심원제 등 제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통합후보를 내놓기로 한 범야권이 단일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는 각 당의 경선 후 통합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지만 여론조사 외 다른 방식의 경선 도입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에서는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참여경선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21일 "경선 과정에 바람이 불게 하려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경선장에 나와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순 변호사를 통합후보로 밀고 있는 시민사회는 참여경선을 꺼리고 있다. 참여경선을 하면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세력싸움이 돼 시민사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시민사회는 제3의 중립적 인사들로 배심원을 구성해 후보의 정견 발표와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배심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논의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민노당의 제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비해 지지자 동원력에서 앞서 있는 만큼 국민참여경선 시 여론조사 상 박 변호사에 대한 열세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시민펀드로 캠프 운영"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변호사는 21일 "시민 펀드를 만들어 캠프를 운영하고 이번 선거를 시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울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는 기존 정치 캠프와 차별화된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저를 대한민국 모금 전문가라고 부른다"며 "선거법에 해당 없는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어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차용하고 선거를 치를 것이며 이 모든 상황은 웹페이지에 모두 공개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상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대부분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장 계좌로 그대로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며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이 큰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도구)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민 펀드는 '유시민 펀드'와 비슷하게 펀드 설립 시 자신의 트위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면서 '네티즌 표'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저축銀 피해자 구제책 마련 착수

재원 마련 어려움 속 포퓰리즘 논란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주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초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마련한 보상안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폐기된 뒤 한 달여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해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 피해 예금주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내년 총선 등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예금보장한도) 초과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책 논의에 들어갔다.

정무위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한시적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주주 은닉재산 등으로 손해배상펀드를 조성하자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 등 2건이다.

여기에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별도로 부실 책임자의 과징금, 벌금, 불법재산 등을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로 예금 피해자들이 늘어난 만큼 부산저축은행 등 기존 부실 저축은행에 초점을 맞춘 구제책으로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다 재원 마련과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 피해 예금주 구제책은 내년 총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 직전 조건 없이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이 이처럼 표결에 전격 참여한 것은 손학규 대표의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로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11시30분으로 미루면서까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모두 16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본회의 참석에 대한 찬반이 반반씩 나올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손 대표가 나서서 "민주당은 솔로몬 왕 앞에 자식을 내놓은 어머니의 심정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데 어머니 심정으로 결단하자"고 말했고 이에 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하면서 본회의 참석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8년 연속 국감 정책보고서 발간

민주당 최인기 의원

민주당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농식품 안전인증제도의 통합과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간은 최 위원장이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년 연속이자 18번째가 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로 농어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유기농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인증제도 보완과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 유기 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증'에 대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특히 수입유기식품 급증으로 국내 유기식품산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